

바람연금 바탕 지속가능 소득 창출, 지역소멸 위기 돌파

부안군이 2026년을 민선 8기 후반부의 본격적인 결실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으로 삼고 바람연금을 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와 생활인구 중심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부안군은 2026년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반 바람연금 모델 구축, 첨단산업·푸드플랜·관광이 맞물리는 세바퀴 경제 고도화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일자리와 생활인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년은 민선 8기 종착점이며 민선 9기의 시작점으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의 미래 구조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부안군은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민선 7~8기 추진한 정책을 오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전략으로 확장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 '바람을 소득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본격 추진

부안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246GW 규모로 14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이다.

실증단계는 이미 운영 중이며 시범·확산단계는 오는 2030년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은 전력 생산에 그치지 않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법과 제도에 따라 지역과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연간 약 1,3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 재원이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나이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상풍력 이익공유 재원(추가 REO)을 활용해 올해부터 장수·순창군에서 시범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적용할 경우 부안군은 오는 2030년 이후 전 군민 대상 월평균 약 2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만금 성장 기회'... RE100 산단·국제제100학교 유치 집중

부안군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서남해 해상풍력과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전국 최초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방위산업 실증단지 및 국제제100학교 유치 등을 통해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새만금 3권역 내부 개발사업 가속화를 위해 연결도로 구축,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추진으로 부안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세바퀴 경제 고도화'... 친환경에너지·농업·관광 선순환 구축

부안군은 수소산업·푸드플랜·관광이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가 완공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루



산업용지 지정 촉구



전북 K-POP 아카데미



로컬푸드직매장 본매장



부안마실축제

1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부안군은 오는 2028년 전국 최초로 농촌형 부안수소도시가 완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을 통해 RE100 산업단지의 연계한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중장기 비전도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완공된 생산·가공·유통·소비 집중터 먹거리 핵심 인프라

인 푸드앰페오프타운을 중심으로 부안형 푸드플랜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에서 돈이 도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농가는 600여 농가, 회원 소비자는 8,6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매출은 250여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푸드플랜을 통해 창출된 매출이 부안 지역의 가공업체와 소규모 농가, 고품질 농가로 다시 순환

결실창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2030년 시범단지 등 단계적 완공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환원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 추진

새만금 RE100 산단 등 유치 집중

친환경에너지·농업·관광 선순환, 세바퀴 경제 고도화

체류·재방문 전략 강화로 지역소멸 위기 돌파구 마련

▲ 체류·재방문 전략 강화... 지역소멸 위기 돌파구 생활인구 증대 최선

부안군은 생활인구 확보를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생활인구 기본소득 제정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 중장년층 재방문 유도와 20~30대 청년층 체류 확대를 병행해 연령별 체류인구 다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번산반도 국립공원, 해양·갯벌·생태관광, 글로컬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글로컬 휴양체류 관광 종합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민생안정·참여행정 적극 추진... 군민 체감도 제고

부안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재정집행과 함께 전방위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어민공익수당 확대, 소상공인·지역업체 지원,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주민 밀착형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또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복합터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읍포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선정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갯벌 복원 생태관광, 블루카본 조성 등 ESG 일자리 확대와 탄소배출권 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결실창래(結實 창래, 지금까지 맺어온 열매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뜻으로 성과와 미래의 개척을 의미)를 2026년 신년 화두로 삼아 군민과 함께 추진해 온 정책들을 충실히 마무리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푸르고 지속 가능한 부안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2026년을 바람연금으로 미래를 여는 도시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바람은 잠시 불고 지나가지만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득은 부안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며 "에너지를 지역의 힘으로 키우고 정책을 군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부안의 미래를 군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갯벌 ESG 투어



출판만 노을빛정원

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 권익현 군수의 포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지역 성장의 기회로”

“에너지 전환 성과, 군민의 삶으로”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6년 신년을 맞아 전 군민 월 25만원 부안형 바람연금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246GW 규모로 14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의 중요한 의미는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과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특별 지원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300억원 규모의 이익 공유 재원이 2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도 했다.

이에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나이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로 해상풍력 이익공유 재원(추가 REO)을 활용해 올해부터 순창·장수군에서 시범 운영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적용한 결과 부안은 2030년 이후 기준으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략 월 2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안형 바람연금 및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업 피해 보상, 송·변전 설비 보상, 건설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해상풍력과 수소산업,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이끌어 내고 기후 위기 시대에너지 전환을 지역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현 군수는 “그 성과가 반드시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